

기록과 기억의 재현* 삼중의 미메시스로 실재읽기

Representation of Collective Memory and Records
: Reality Reading Based on Triple Mimesis

문향기(Moon, Hyang Gi)** · 김익한(Kim, Ik Han)***

1. 들어가며
2. 증거와 기록
 - 1) 근대적 기록
 - 2) 기록의 재현성
 - 3) 증거란 이름의 한계
3. 기록과 기억
 - 1) 기억담론의 배경
 - 2) 아카이브와 기억담론
 - 3) 기록과 의미론
4. 미메시스를 통해 기록보기
 - 1) 기록과 해석학
 - 2) 삼중의 미메시스로 기록보기
 - 3) 기록과 기억과 역사
5. 맺으며

* 본 연구는 문향기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hyanggi626@naver.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ikhan@mju.ac.kr) (교신저자).

■ 투고일: 2021년 06월 30일 ■ 최초심사일: 2021년 07월 09일 ■ 최종확정일: 2021년 07월 12일.

■ 기록학연구 69, 153-187,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9.153>

〈초록〉

인간 삶은 '서사'로 재현되기도 하고, 삶의 과정에서 인간 스스로 '서사'를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서사'는 삶과 시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시간들이 아니다. 과거는 미래에 개방되어 있고, 미래는 과거의 의미를 규정하며, 과거는 현재의 삶의 지평으로 환원된다. '서사'는 이러한 열린 시간성을 전제로 형성된다. 기록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서사'이며, 이 '서사'에 의해 과거의 시간이 재현된다. 또한 기록을 읽어내는 행위에 의해 기록의 '서사'가 아닌 새로운 '서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실재와 기록된 '서사'는 순환적이고 변증법적인 구조로 서로를 보완한다. 이 글은 실재와 기록, 그리고 기억이 맺는 관계에 대해 현상학적 방법을 동원해 탐구한다. 탐구 도구로 폴 리콥르의 해석학을 채택하여, 기록이 어떻게 실재와 관계 지워지고 해석되는지, 그리고 아카이브 정의에 복무하는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주제어 : 삼중의 미메시스, 기록, 재현, 실재, 집단기억, 아카이브 정의

〈Abstract〉

Narrative runs through the entire human life. 'Narrative' is a means of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human life.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are not disconnected. The past is open to the future. The future defines the meaning of the past, and the past return as the horizon of life. Past, present and future temporality functions as a Narrative. Records reproduce the past time as Narrative, and recount the past according to reading behavior. Reality and records complement each other with a cyclic and dialectic structure.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records. This paper applies Paul Ricoeur's Hermeneutics to records as a tool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record. We want to look at how records interpret

and relates to reality, and how social justice of collective memory should be should be achieved against them.

Keywords : Triple Mimesis, Records, Representation, Reality, Collective memory

이 전표는 방대한 서적 자체가 아닙니다. 전혀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질감도 무게도 냄새도 아름다움도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 하지만 저는 압니다.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기억이 있어요. 그 명세서를 보면 한 권, 한 권이 생각나지요. 무게도 질감도 페이지를 펼쳤을 때의 두근거리는 기분도, 글자를 쫓는 희열도 모든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억입니다. 기록은 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추억조차 아닙니다.

—京極 夏彦(교고쿠 나츠히코, 2012, 36) 『定本 百鬼夜行 陽』 중에서

1. 들어가며

근대학문으로서의 기록학은 근대국가의 중점이 되는 관료사회의 형성, 그리고 실증주의 역사학의 영향을 받아 성장해왔다. 객관적 사실의 서술을 약속하는 역사 실증주의에서 기록은 증명할 수 있는 사료였고, 업무의 책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기록은 근대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기록은 그러한 배경에서 업무의 수행과정과 사건을 증빙하며 증거라는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확산 아래 이러한 증거 가치로서의 기록이라는 기본 개념은 흔들리고 있으며, 기록학계에서는 기록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록학의 기본 개념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회적 인 담론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이승억, 2013, 195-196).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주의에 대한 회의를 기조로 했다. 이것이 기록학 분야에서는 실재론, 경험주의, 역사 실증주의 등 기록에 지배적으로 적용되던 근대적 객관성을 허물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대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배제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시도이며, 기록 안에 박제된 실재를 구해내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영향에 따라 기록학은 지금까지 취해온 자기 동일성, 저자의 절대화, 통합된 거대 담론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상대성에 주목하고 의미의 무한한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기록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록으로는 온전한 진리나 실재에 도달할 길이 봉쇄되어 있으며 기록으로는 실재를 전혀 알 수 없다는 담론으로 흘러가기도 쉬웠다. 이러한 영향 아래 기록학계는 기록으로 실재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다면 어찌해서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이 탐구의 과정에서 서구의 많은 기록학자들은 기존까지의 존재론이나, 증거론 대신 의미론이라는 틀로 기록을 보고자 했다(장대환, 김익한, 2019, 282-283).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록 의미론은 이용자들의 기록에서 의미를 창출해내는 활용론적 부분이 중심이 되어왔다. 활용론에 집중된 기록 의미론은 기록이 담을 수 있는 맥락과 실재했던 사건의 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조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기록과 기억, 그리고 실재가 관계를 맺는 철학적, 해석학적 의미론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실재(Reality)와 기록 그리고 기억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한다. 기억과 기록, 실재의 간극을 읽어낼 방법으로 '서사'를 조명하며, 이 서사를 읽기 위해 해석학과 의미론을 채용한다. 단, 여기에서 다룰 의미론은 기존 기록학의 이용자 중심의 가치 창출적인 의미론이 아닌, 실재와 기록과 기억의 서사의 상호작용

을 통한 변증법적 기록 의미론이다. 실재와 기록된 '서사'는 순환적이고 변증법적인 구조로 서로를 보완하기 때문이다. 기록의 의미가 기록을 이용하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기록과 기억, 실재 사이의 변증법적인 관계에 따라 '종합적인 재현'을 이루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이 글에서 다루는 '종합적 재현'은 기록이 포착한 실재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언어를 기호의 닫힌 체계로 보고, 텍스트 밖의 무언가를 증거로 인용하지 않는 후기구조주의 혹은 해체주의가 주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상학적 존재론¹⁾에 입각한 해석학을 주요하게 다룬다. 여기에서 기록을 읽어내는 도구로 폴 리쾨르(Paul Ricœur)가 제시한 삼중의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빌려와 기록에 적용하고자 한다.

미메시스는 주로 모방, 재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미학, 철학, 교육학 등에서도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 미메시스를 주요하게 다룬 학자는 대표적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벤야민(Walter Benjamin), 폴 리쾨르 등이다. 플라톤은 미메시스가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모방한 것은 모방된 것에 다가서지 못하는 거울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플라톤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메시스의 대상을 넓혀 현실에 있을 수도 있는 일, 문학 등에서 '현실의 가능태'를 재현하는 것까지도 미메시스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미메시스란 자연과 보편을 재현하는 것이었다(유기환, 2010, 389-394). 하지만 근대이전의 미메시스는 주로 예술과 관련되어 논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현대에 들어서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1) 존재론은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지니는 근본적인 규정을 고찰하는 형이상학의 한 부분이다. 현상학은 후설에 의해 창시된 철학으로 객관적인 본질을 진실로 포착하려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해석학은 현상학적 존재론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약속된 땅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지향해야 할 지점으로 여긴다.

다루며 다시 주목받은 대표적인 학자는 벤야민(Walter Benjamin)이다. 벤야민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비감각적 유사성 측면의 미메시스를 논했다.²⁾ 벤야민은 태고의 비감각적 유사성 읽기가 후에 언어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 읽기로 전해졌다고 말하며, 사물과 언어 사이에 필연적인 유사성, 미메시스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리포르의 경우 벤야민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부분이 더 두드러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 이론을 결합하여 삼중의 미메시스 개념을 정립했다. 삼중의 미메시스 이론은 삶, 역사, 기록 등 줄거리가 있는 모든 것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삼중의 미메시스는 주로 허구와 역사를 핵심 영역으로 하며, 삶과 텍스트 사이의 필연적인 상관성을 말한다(유기환, 2010, 394-402) 점에 있어서 기록 읽기에 유효하다. 본 글은 기록이 재현을 통해 완벽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해석을 통한 무수한 의미창출 만이 있을 뿐이란 주장 사이에서 실재와 기록과 기억이 맺는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것으로 실재³⁾를 어림잡는 우회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록 의미와 해석에 관한 연구로 기록학, 역사학, 철학 분야에서 다뤄진 기록학의 철학적 지형, 기억 담론, 아카이브 정의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한 뒤, 기록에 해석학을 적용한다.

한국의 기록철학연구에서 이승억(2013)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닌 상대주의적 회의를 통해, 기록을 상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기록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해명하고자 했으며, 장대환/김익한(2019)는 서구 기록학계에서 논의되어온 기억 담론의 지형을 검토하고, 아카이브

2) 벤야민은 자연의 세계에서 인간이 설정하는 유사성은 의식적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며 무의식적으로 지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고대의 점성술이 비감각적 유사성을 읽어내는 대표적 미메시스 행위다.

3) 여기서 실재라고 표현된 것은 근대적 개념의 도달할 수 없는 객관적 실재가 아니며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존재했고 존재하던 과거를 의미한다. 이 과거는 해석이란 과정을 통해 진리에 이르려는 과정이다.

의 정의에 대한 담론을 정리하였다. 설문원(2019)는 기록 활동 의미를 재조명하고 기록을 증거나 정보로 정의하는 것이 아닌 활동의 고정적 재현물로 정의하고 그 특성을 살피고자 했다.

역사학 분야에서 노명환(2011)은 서양역사 속의 공론장으로서의 아카이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언급하며, 아카이브의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기억 담론을 정리했다. 양호환(2009)은 역사와 집단적인 기억간의 관계를 살피고, 과거를 아는 방식에 있어 기록과 기억의 생산부터 이용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실행하는 단계의 연쇄성을 언급하였다. 이종흡(2018)은 역사학과 기록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기억 담론의 흐름을 살피며, 각 학계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이종흡은 서구 기록학계의 기억담론이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을 기점으로 가장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기억담론의 변화가 단절적인 변화가 아닌 강조점의 변화라고 말했다.

기록학 분야의 기록 의미와 해석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 다수 선행되었다. 베른 해리스(Verne Hariss, 2002)는 기록의 해석에 따른 의미 생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기록을 기억의 흔적으로 보았다. 기록의 의미는 실재와의 연관성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라기보다 기록이 만들어진 구성과 재구성된 지층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기록이 실재보다는 그 실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맥락과 해석, 기록의 구조 등에 의해 정의된다는 주장이다. 그렇기에 해리스는 최대한 기록에 많은 맥락을 드러내야 하며, 이용자에게도 맥락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릭 케텔라(Eric Ketelaar, 2001) 또한 기록을 기억 흔적으로 보았다. 케텔라는 데리다를 인용하며 기억흔적에 대해 아키벌리제이션(archivalization)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했다. 아키벌리제이션이란 아카이브가 사회문화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아키이빙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케텔라는 아

카이브의 숨은 서사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의미 계보”를 엮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미의 계보는 기록의 본질이 생산에 의해 정해진 실재가 아니라, 이용에 대한 개별적 추론과 탐문과정에서 해석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된다. 그렇기에 케텔라 또한 해리스와 마찬가지로 기록에 존재하는 숨은 서사,⁴⁾ 아카이브 요소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기록을 기억흔적으로 보지 않고, 활동의 고정적인 재현물로 보는 제프리 여(Geoffrey Yeo, 2007)의 경우는 케텔라, 해리스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용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여는 이용자가 기록을 이용하고자 할 때 다양한 어포던스(affordance)가 생성되며, 이용자의 해석을 통해 기록의 의미가 풍요로워진다고 보았다.

이처럼 기록의 의미생성과 관련한 연구는 기록 자체가 사건의 완전한 서사가 아니며 이용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 중요하다. 기록은 프리즘처럼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파편으로 기능한다. 그 기능에 충실하여 최대한 많은 맥락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실재와 기록이 맺는 관계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해석학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 이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학문이다. 해석학은 단순히 의미를 증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과정을 다룬다. 해석학은 텍스트의 세계와 함께 존재를 전제하기에 기록과 실재를 읽을 방법으로써 해석학을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해석학자는 리코르(Paul Ricoeur)다. 리코르는 주체가 삶의 세계에 있으며, 존재를 인식론적 전제 없이 서술할 수 있는 것이 언어라고 말했다. 리코르는 언어학의 의미론을 수용하였으나, 언어를 기호체계로만 보는 구조주의와는 달리 언어가 드러내는 것이 세계라고 보았다. 리코르는 세계를 관통하는 시간을 이야기라는 수단으로써 간

4) 분류, 코드화, 라벨링, 기록 기술 등의 실무관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업무, 혹은 사건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 또한 이야기(narrative)이며, 이야기로 우리는 그 시간을 어느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리콤폴르의 저서인 『시간과 이야기』, 『기억, 역사, 망각』과 국내에서 출판된 폴 리콤폴르에 대한 해설서와 연구를 분석 후 기록에 이를 적용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2. 증거와 기록

1) 근대적 기록

기록학의 근대적 기원은 실증주의 역사학, 그리고 국가통치와 관련한 사회학 논의의 기반 위에 있었다. 실증주의 역사학은 역사적 자료에 충실하게, 선입관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실증주의 역사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탐구할 수 있다고 여겼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탐구된 과거는 ‘객관적이며 신뢰할만한’ 것이어야 했으며 그 근거가 필요했다. 그 근거로서 채택된 것이 휘발성이 낮은, 지배계층의 문헌과 기록이었다. 기록과 문헌은 기록을 서술할 수 있는 ‘사료’로서 취급되었다.

사료를 취급하는 기록보존소 설립 운동을 주도한 랑케(Leopold Ranke) 또한 역사주의적 실증주의자였다(노명환, 2011, 103-104). 랑케는 철저히 사료에 의거하여 실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의 역사서술을 제안했다.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한 사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이를 비판·검토한 뒤, 타당한 사료에 한정하여 역사서술을 시도한 것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되어 타당하다고 선정된 기록은 ‘역

사적 증거물'로서 사건의 충실한 재현물이 되었다. 사료로 서술된 역사는 실재와 동일시되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같이 객관적인 진리로서 취급되었다.

그러나 실증주의 역사학에서 다루는 사료는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무리 다수의 학자가 평가한다고 해도 교육받은 엘리트층의 시선으로 선별된 기록일 뿐만 아니라, 남겨진 기록 자체도 권력의 반영으로 '남겨진' 것이며, 권력 이전의 사회적인 관습이 이미 편향적으로 기록에 반영되기 때문이었다. 더해 사료로 채택된 기록은 사적인 기록을 대부분 배제하고, 증명과 측정이 가능한 것만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었다. 푸코(Michel Foucault)식으로 표현하자면 실증주의 역사학에서 추구하는 객관적인 역사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수용과 배제의 원리로 재현된 사건의 파편일 뿐이었다(윤은하, 2016, 133-135).

이렇듯 초기 아카이브는 '사료'의 취급기관으로서 역사학과 동반자였지만, 아카이브는 꾸준히 역사학에 덜 종속적인 기관이 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갔다. 그러한 시도 끝에 아카이브는 통치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했던 근대 국민국가의 필요에 따라 행정 문서의 관리기관으로 거듭났다(이종흡, 2018, 465-465).

근대 국민국가의 관료제적 통치를 행할 핵심 수단은 관료들의 자의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과 규칙성을 늘릴 수 있는 명문화된 매뉴얼에 의한 행정, 즉 문서기록제도였다. 베버(Max Weber)는 근대 서구의 합리성에 기반한 관료제도의 발달에 주목하며 관료제도의 핵심에 기록제도가 있음을 지적했다. 문서에 의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업무는 진행되고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졌다. 기록은 업무를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정당성을 증명했다. 근대 관료제도 아래에서 기록은 '사료'로서의 기능 이전에 '증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노명

환, 2011, 105-106).

증거로서의 기록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위조나 변조, 훼손 등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기록의 주요한 4대 속성과 설명책임성이 부각되었다. 아키비스트는 국가의 법적 증거물인 기록을 변조나 위조 없이 온전하게 지키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록 보관자이자 아카이브즈 기록과 시설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정체화하였다.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 나아가 기록 생산의 출처, 맥락, 질서 등을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통치수단으로 국가의 업무수행이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의 효용은 법적인 소송의 안에서만 기능한다. 이는 기록의 증거성이 객관적인 것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역사적인 증거물로서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증거할 수 있는 특정한 서식 안에서, 사건이나 업무가 다루어지기에 업무적 증거인 기록 역시 충실한 현실상의 재현이 아닌 법정 증거물로 다뤄지기 위해 편집된 상일 수 있는 것이다.

2) 기록의 재현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사실증주의에서는 기록이 자연법칙과 같이 진리를 규명할 수 있는 사료로 여겨졌고, 근대관료사회에서 생산된 기록은 업무를 증명하는 법적 증거물로 인식되었다. ISO15489-1 표준에서도 기록을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정보로써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로 증거와 정보라는 맥락 아래 다루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의 목적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으로 정의함으로써 효율적 행정의 도구이자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증거로서의 기록을 표방했다. 기록

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건의 반영이라는 인식에서 나온다. 업무를 기록한 사건의 반영물로서의 기록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현재에 불러낼 수 있는 재현성을 지닌다. 재현이라는 성질이 증거 가치로서 기록의 핵심을 이룬다.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말은 다시 나타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현상에 대한 부정, 그리고 현상 뒤의 어떤 실체나 본질에 대한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실재나 본질을 보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식철학을 기반에 두고 있다. 의식철학은 물자체라는 완전한 본질이자 세계를 상정한다. 칸트는 인간이 물자체를 인간의 인식적인 한계 탓에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인간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서의 선험적인 자의식이 그러한 질서와 진리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이승역, 2013, 195-196). 선험적인 자의식이란 주관적인 인식 틀로 물자체, 실재 자체가 아닌 그 실재가 촉발하는 감각적인 인식을 받아들여 대상을 조건 짓고,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다. 인간이 공유하는 선험적인 틀이 있기에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계에 한에서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황설중, 2009, 103-109).

선험적인 의식을 통해 실재는 인식된 뒤, 기억되고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이 된다. 지식이 매체에 고정되어 기록화되면 누군가가 그 기록을 읽는 행위에 따라 재현된다. 인간에게 있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의 정립을 통하여 만들어진 기록이기에 그것은 사건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수에 의해 진리로서 선별된 기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 실증주의의 사료 또는 법정 증거물이 되었다. 그렇기에 기록이 변조가 없도록 관리하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술하는 아키비스트의 일은 객관적이고 변조되지 않은 진리의 재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3) 증거란 이름의 한계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회적인 담론이 확산되며 증거로서의 기록은 인식적인 한계뿐 아니라 의미론적인 한계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근대까지 사람들은 세상의 본래 모습과 동일한 개념적인 지식을 추구했다. 세계를 인간의 지식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세계는 인간이 구성해내는 산물이었다(박영옥, 2009, 24). 기록 또한 동일하게 인간이 구성하는 감성적인 세계에 한해서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정립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에서 재현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구조주의는 의식철학의 사유하는 자아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 절대적인 주체가 아닌 오로지 관습과 언어로 이루어진 구성물이 있을 뿐이라고 본 것이다. “푸코(Michel Foucault)와 데리다(Jacques Derrida), 라캉(Jacques Lacan)은 자아가 세계의 근원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관계와 담론(언설)과 욕망을 통해 생산된 하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주체는 세계 이전,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담론 속에서, 담론을 통해서 구성된 자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강영안, 2011, 113).”

이 논의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적인 맥락이 규정한 만큼 혹은 담론을 통해 파악한 만큼만 실재를 알 수 있다. “텍스트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충이고, 현재 부재하는 것에 대한 대리자이지만, 현상학적인 환원을 통해 초월적 주체로 환원될 수 없는(강영안, 2011, 113)”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을 읽어내는 사람뿐 아니라 기록을 생산해내는 사람도 담론과 사회적 관계, 욕망을 통해 규정된 만큼만 사건을 인식한다. 실재와의 간극 이전에 이미 인지하는 지점부터 이미 편향된 지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기구조주의와 해체주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의 기록이란 자명하고 유일한 증거를 모은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 의해 구축된 산물에 불과하며, 비의도적인 누락과 의도적인 배제에서

살아남은 증거일 뿐이다.

텍스트의 의미 수용에 대한 문제 또한 존재한다. 텍스트의 의미론적인 기반에서 사람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의미란 상이한 것이다. 프로그래머가 인식하는 컴퓨터, 아이가 인식하는 컴퓨터, 일반인이 인식하는 컴퓨터가 다르듯 기록화된 사건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록의 경우 도서보다도 난해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더욱 취약해진다. 바르트(Roland Barthes)는 언어의 의미가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의된다고 말했다. 텍스트의 의미가 저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야우스(Hans Robert Jauss) 또한 수용미학에 대해 언급하며, 독자를 수용담지자의 위치로 끌어올렸다. 야우스에게 텍스트란 생산과 재현의 폐쇄적인 순환이 아니라 소비하는 주체를 통해 의미가 이해되는 것이었다. 이 같은 관점은 종래 근대 기록학이 취해오고 있었던 사건의 생산과 재현, 기록과 그 사건 간의 1:1로 대응되는 의미 관계를 허물었다. 기록은 이용자가 그 기록을 이용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재현되는 것이며, 그 재현되는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게 수용된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증거나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닌 수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의미가 재정 의된다.

3. 기록과 기억

1) 기억담론의 배경

증거로서의 기록에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학계의 관심은 기억으로 옮겨갔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기억은 ‘부재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어왔다. 실제 경험의 반영인 기억은 개인으로서의 연

속성을 보장하고 학습, 소통, 인지 등의 인간 행동의 바탕으로 여겨졌다. 기억은 기록보다도 우선하여 현실에 있어 부재하는 대상을 재현하는 수단이었다.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출현하기 전 전근대에서의 기억은 역사학이 추구한 지식체계와 달리 상상에 따라 공간적으로 배치되는 이미지로서 현재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근대 구술 문화 속에서 기억의 권위는 과거가 남긴 지혜를 재생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에서 집단 기억은 망각에서 잊혀지는 과거를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양호환, 2009, 9-10).

그러나 19세기 역사학이 전문화되면서 기억은 기억 자체가 가지는 특성 탓에 점차 증명되어야 하는 의문스러운 자료가 되었다. 기억은 부재가 열어주는 자유 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사건을 자의적으로 변형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19세기의 실증주의 역사관에서의 역사편찬은 주관성과 변형성이 큰 기억보다는 변조가 적은 잘 관리된 기록을 선호했다. 역사가들은 체계적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편찬했으며, 잘 정리되고 기술된 기록 자체가 역사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는 객관적이고, 집단적이며, 단합적이지만 기억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복합적인 것이 되었다(장대환, 김익한, 2019, 293).

베르그송(Henri Louis Bergson)까지도 기억은 그 기초를 개인에 두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기억의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부각했다. 알박스는 집단 기억이라는 저서에서 베르그송의 순수기억이라는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기억을 사회현상으로 해석하며 이는 집합적인 기억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집단은 역사를 집단적인 기억으로 유지하고 역사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적용하는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은 자신의 역사를 그룹의 역사와 동일화하는 틀로 역사를 자신의 정체성 부분으로 적용한다. 그렇기에 집단은 집단기억으로 자기 주체의 성질을 획득하며, 개인 기억 또한 사회 구성틀인 집단

기억으로 매개된다(정기철, 2016, 531-532).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따라 “역사실증에서 추구하는 객관적 실재의 복원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이종흡, 2018, 458).”는 비판을 받은 역사가들이 이러한 집단기억으로 눈을 돌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록이라는 것은 수용과 배제의 원리로 평가되어 인정받은 공식적인 기억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억은 어디까지나 제도적이며 권력의 영향을 받아왔고, 기록되지 않은 민중의 삶과 다양성은 오로지 제도권이 인정하는 만큼만 정사에 포함되었다.

“1960년대 말 이후로 급증한 자서전 출판, 족보 연구, 개인 컬렉션 구축 등 기억의 사유화 현상은 생생한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멀어진—그리고 국민국가나 계급 단위로 정형화된— 메타역사서술에 대한 불신과 염증에서 나온 현상(이종흡, 2018, 456)”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유화 된 기억은 알박스의 집단 기억보다는 개인적인 기억에 더 가까웠다. 집단 기억이 본격적으로 조명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였다. “1980년대의 기억담론은 기존 역사서술에 대한 불신을 공유하면서도, 다시 집단 기억의 편에서 생생한 역사적 체험의 회복을 시도한 것이었다(이종흡, 2018, 456).”

알박스가 말하는 집단 기억은 개인기억도 보편적인 의미의 역사도 아니다. 각각의 집단이 상상하는 공간의 이미지를 매개하여 메타적으로 공유하는 집단 의식이다. 이를 수용하여 발전 시킨 것이 피에르 노라(Pierre Nora)다. 피에르 노라는 통합된 거대담론으로의 역사를 지양하고, 상황에 바뀔 때마다 변화해온 기록, “다양한 목소리”가 얽힌 새로운 유형의 역사를 추구했다. 노라는 기억의 시간을 기억의 역사라고 표현했다. 기억의 사회적인 속성을 통해 개개의 기억이 아닌 집단이 공유하는 기억을 풍부하게 역사로서 쓰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았다. 집단기억 또한 개인적인 기억처럼 집단 안

에서 망각되고, 쉽게 선별되기 때문이다. 집단기억은 공동체 정체성으로 매개되기에 쉽게 이데올로기화 되거나 망각을 통한 정체성 상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집단기억은 그 자체로 사회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부끄러움 등으로 민중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잊어버린 것처럼 이야기된다. 대표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많은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민들과 함께한 환락업에 종사하던 황금동 여성⁵⁾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꺼내지지 않듯이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그러한 기억은 망각된다. 더하여, 이데올로기화된 집단기억은 개인정체성을 위협한다. 특정 사건이 모든 개인에게 같은 감상으로 서술되는 것처럼 집단기억으로 매개된 기억은 집단기억을 촉진하는 개별기억과 집단기억의 연관을 역으로 끊어버리고 개별기억을 집단기억으로 대체해버릴 수 있다는 위험도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기록에 기반한 권력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라면 집단기억은 민중사학의 축으로 혹은 사회적 약자들의 잊혀진 삶을 되살릴 수 있는 매개체로 이해되었다. 집단기억은 보편기억인 근대 역사학의 반대편에 서는 대항 기억으로 기능했다.

2) 아카이브와 기억담론

기억담론은 기록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근대까지의 아카이브는 역사 실증주의와 함께 성장했고, 근대 국민국가의 관료제적 통치의 핵심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역사학이 기억의 역사를 말하고, 공동체의 집단 기억에 대해서 말할 때 아카이브도 자연스럽게 동시대적인 변화를 이

5) 황금동의 여성들은 대표적인 우범지대에서 환락업을 하는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5·18민주화운동 때에 시민군을 도운 이들이었으나 그들과 관련된 문헌이나 증언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억압된 기억 중에서도 더욱 억압된 기억이 분명 존재한다.

루어야 했다. “국민으로 느슨하게 엮였으며, 파열 위험이 상존하는 시민사회의 다원적 요구에 유연하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키비스트는 자신의 조치와 결정을 독자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했으며,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적 어젠다를 제시해야 했다(이종흡, 2018, 465-466)”

그런 배경에서 아카이브는 도서관, 박물관처럼 시민 중심의 문화유산기관으로, 혹은 국가를 넘어선 집단기억을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해야 했다. 사회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던 하워드 진(Howard Zinn)은 1970년 SAA연례회의에서 “지배층 중심의 기록에서 벗어나 보통사람들의 기록을 모아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을 제안하고, “아키비스트는 전문가의 중립성이란 거짓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 사회가 부정하는 평화, 평등, 정의라는 인간적 가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례회의의 결과 아카이브의 개혁을 위한 비공식 모임으로 ACT(Archivist for Action)가 창설되었으며, 1972년 발표된 ACT 보고서의 방향은 전문성의 확립, 전문직의 사회적 역할과 관심에 의거한 수집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이현정, 2014, 220-222).

이 수집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해 주목받았던 것이 사회적인 기억이다. ACT의 보고서는 메뉴스크립트 수집에 있어서 엘리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SAA 협회장으로 취임했던 햄(F. Gerald Ham)은 ‘경계에 선 기록관리’라는 연설을 통해 ‘능동적인 아키비스트’라는 역할을 천명하였다.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햄이 지닌 보통사람의 기록을 모아 역사를 쓰겠다는 생각의 실행이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 전체의 문서화, 행동하는 아키비스트라는 의제는 대항기억의 생성, 집단기억의 사회적 기억화에도 연관되었다. 정부나 모기관에 충실한 부속기관으로서 아카이브가 아니라 문화유산 혹은 집단기억의 능동적 전승자로서의 아카이브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유사 기능에 우호적이었던 시민들을 설득했다.

기록학계의 기억담론은 사회적 기억의 형성이나 전승자로서 아카이브의 역할을 강조했고, 아카이브의 문화유산기관 내지 기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억담론이 추구하는 방향을 조금 달리한 것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억담론은 통합된 민중이 아닌 다층적인 사람들, 소외되고 비가시화된 존재들의 기억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라가 기억의 장소에서 말한 새로운 역사는 보편성보다는 다양한 목소리의 얽힘을 중시한 것이었다. 사회 전반을 포괄하여 구성원 전원이 공유, 수용할 수 있고, 전승할 가치가 있는 기억이라는 표적 척도라는 험의 화두는 결국 노라와 다른 보편론으로 귀결되었다. ‘전 사회구성원’, ‘대표적’ 등의 언술에서는 또 다른 절대화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를 도외시한 가치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두된 사회표상론은 비주류에 대한 공평한 기록화를 표방했지만 전 사회의 기록화라는 통합 서사의 요소를 함께 포함했다(이승억, 2013, 214-215).

사회표상론은 보존하는 전체 기록의 양을 늘려 기억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노라가 말한 아카이브 강박증과도 이어지는 문제로 나타났다. 1990년에 들어서며 공공의 기록화 자체에 대한 회의는 짙어졌고, 포스트모더니즘 기억담론이 기록학계에서도 고개를 들었다. 여기에는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데리다는 기억 흔적들을 밀랍판에 남기는 행위를 “아카이브화”로 명명하였는데, 기억을 남기는 것, 기록을 남기는 것, 그리고 재현하는 것까지 모두 아카이브화라고 칭했다. 기억은 기억 흔적으로부터 원초적인 기억으로 향하려는 회복 욕망을 지닌다. 원초적 기억으로 향하려는 회복욕망은 또 다른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흔적은 소멸되지 않고 끝없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데리다는 “아카이브화는 그것이 기록한 만큼 사건을 새로 생산한다”고 말한다. 기록의 생산, 기억의 회

상, 기록을 읽어낸 것 모두가 독립적인 별개의 사건으로 본 것이다. 데리다는 아카이브 된 것 바깥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재는 기억과 기록 어느 쪽이 되었든 모두에게 단절되어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독특한 사건일 뿐이다. 그저 회상하려는 시도인 흔적만이 유령처럼 우리의 주변을 떠도는 것이다. 데리다가 말하는 아카이브화는 정신 내부에 기억 흔적을 남기는 것과 정신 외부에 실제 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무형의 기억 흔적과 유형의 실물 기록들이 동일원리로 설명한다.

이러한 단절이 전제된다면 아카비스트는 랑케처럼 과거 실재를 복원하여 진리에 이르겠다는, 혹은 피에르 노라처럼 기억흔적으로부터 생생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역사학적 목적에 충성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데리다에게 원초적 기억을 소환하려는 시도는 유령 이외에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유령은 실재와 허구, 진실과 거짓, 진체(眞體)와 망상 사이에 걸쳐있기에 존재보다도 우위에서 “진리의 일부”를 가진 것이다. 그 아주 작은 진리의 일부가 아카비스트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 아카이브화 된 모든 것이 유령이며, 진리나 실재에 도달 할 길이 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왜 아카이브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종흡, 2018, 474-478).

3) 기록과 의미론

기억흔적이란 기록을 포함하여 기억 활동이 남기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서구 기록학계에서는 이 진리의 일부인 기억흔적으로 실재에 접근하기보다는 그 개개의 기억흔적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의미의 생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기록의 의미로는 결과를 목표로 한 과정이 아니라, 그것이 생성되는 과정 자체를 목표로 삼았다.

해리스(Verne Harris, 2020)은 데리다를 인용하면서, 기억 흔적으로서

의 기록을 “사건으로 향하는 창문의 작은 일부”에 비유했다. 창문의 작은 일부에 실재는 비추어지지만, 거울처럼 명료하게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굴절되고 물결이 치는 것처럼 비추어진다”는 것이다. 이 수없이 많은 다층적인 투영은 곧 기록은 실재와의 연관성에 의해 정의되기보다는 “끝없이 포개지는 구성, 재구성된 지층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의 생산자, 관리자, 아키비스트, 이용자가 이 기록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어간 지층과 미로들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고 말한다(이종흡, 2018, 475).

케텔라(Eric Ketelarr) 또한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을 언급하며 아키벌리제이션(archivalization)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기록을 이용, 생산할 때마다 나타나는 기록 흔적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아키벌리제이션은 생산 이전 단계에서 아카이빙 전에 존재하는 아카이브 요소들을 주목한다. 사건, 맥락, 업무, 대상, 이슈 등을 아카이브화 하겠다고 정할 때 그 기록은 기록의 생산자, 관리자, 아키비스트, 이용자 같은 인적 요소와 실무 관행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다. 케텔라는 인적 요소와 실무관행 등을 아카이브 요소라고 이름 붙이고 숨은 서사(tactic narrative)로 규정했다. 이는 해리스가 말한 지층의 추적과도 연관되는 이야기이다. 이 숨은 서사들은 의미론적 족보로 엮이며 아카이브에 끝없이 의미를 더해가고, 이 과정에서 기록의 의미는 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런 의미에서 “케텔라(2012)는 마치 토지가 경작되듯, 기록은 ‘재배(cultivating)’되어 이용자에 의해 해석되고 이용되는 의미 저장소이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실은 무한대라고 주장했다(장대환, 2019, 298).”

사회적 지층과 미로를 면밀히 따라가기, 숨은 서사 드러내기는 커다란 사건에 접근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이는 여(Geoffrey Yeo)가 기록을 보는 방법과도 유사하다. 여는 기록을 활동을 지속적인 재현물로 보기에 데리다와는 관점을 달리하지만, 이 또한 재현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것에서 의미론과 연관된다. 여

는 기록의 재현물이 제공하는 것은 다양한 어포던스(affordance)이며, 이는 기록이 제공하는 '특성과 기능'으로 번역된다. 증거나 정보도 기록이 제공하는 어포던스 중 하나일 뿐이며, 이용자가 기록을 이용할 때 각 이용마다의 기록 의미가 정해진다고 본 것이다(설문원, 2019, 19-20)

이용을 통한 의미의 규정, 숨은 서사를 드러내기 등의 연구는 종래 기록이 재현하고자 했던 실재와의 연관성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이용자, 관리자를 모두 포괄하여 각자의 해석으로 기록을 읽어내는 방식이다. 이런 시선에서 볼 때 기록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닌 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는 기록 의미의 확장성을 극대화한 것이지만, 실재했던 것들과의 관계는 피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4. 미메시스를 통해 기록보기

1) 기록과 해석학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읽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억이든 기록이든 결국 기억의 흔적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케텔라나 해리스는 데리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의미론적인 족보를 엮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다양한 해석은 상상적 표상과 뒤섞일 위험이 있으며, 사건과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진다. 기록이 재현하는 바의 본래 행위와 기록 의미의 관계는, 실재와 이용자의 의미생성 사이의 변증법적이며 간주관적(intersubjectivity)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통합된 진리나 사실로서의 거대역사로 뻗어 나간다면 소수의 목소리의 배제와 같은 문제가, 또 개인화된 의미로만 뻗어 나간다면 연대 없는 파편화된 삶으로 기록을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록의 현상학적 존재론과 의미생성론을 통합하여 변증법적인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폴 리코르(Paul Ricœur)의 해석학, 그중에서도 삼중의 미메시스 이론을 기록에 적용하고자 한다. 해석학은 포스트모더니즘 담론과는 다르게 개별적인 속성보다는 보편성을 내세운다.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인식이 있기에 사람이 기록을 만들고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근대적인 시선일 수 있으나 해석학은 보편성에만 기대지 않으며, 상대성이란 이념을 배제하지 않는다. 순환의 원리에 따른 이해의 비종결성, 진리를 향한 개방성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데리다의 탈구축과 유명론과도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반성철학의 전통을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폴 리코르의 해석학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해 진리와의 틈을 메워가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텍스트를 텍스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인식하는 문화, 종교, 정치, 역사, 과학을 통해 해석하여 ‘서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폴 리코르의 해석학이다(정기철, 2015, 193-157). 기록은 해석학이란 렌즈로 보았을 때 하나의 ‘서사’를 이루며 이 ‘서사’에 의해 과거의 시간이 재현될 수 있다.

리코르는 시간 경험을 이야기로 이해했다. 시간은 이야기, 즉 ‘서사’로 구조화되며, 서사를 통해 역사적 시간은 인간의 시간 경험과 연결된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 또한 시간 경험이며 기록은 시간 경험을 재구성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리코르에게 시간은 반드시 이야기로 구성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리코르는 시간을 이야기로 구성하여 이해하기 위해 ‘삼중의 미메시스(mimesis)’라는 개념을 만들었다(정기철, 2015, 295).

미메시스는 영어권에서 대체로 모방(imitation) 혹은 재현이라고 표현되었다. 그러나 미메시스는 단순하게 모방이나 재현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며, 창조라는 측면을 포함하는 단어이다. 현대미학이나 서사론에서 미메시스(imitatio)는 실재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닌, 존재했던 것을 창작자, 이용자의 측면에서 해석하여 재구성한 창작물이다. 이런 미메시스의 개념을 해석학에 도입한 폴 리쾨르는 미메시스를 현실을 허구화하고, 허구화한 현실을 재구성하며, 현실에 다시 도입하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허구의 이야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역사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리쾨르에게 문학과 역사는 시간⁶⁾ 경험을 지시하는 이야기로 역사와 허구는 구조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리쾨르는 기억과 기록을 상상적 표상과 떼어놓을 수 없기에 허구와 닮아있다고 보면서도 기억과 기록은 결국 과거에 대한 지시나 재현기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정기철, 2016, 294-310).

기억을 포함하는 기록은 과거 사건을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니지만, 기억과 기록 모두 과거와 필연적인 상관성을 지니게 된다. 미메시스는 실재를 알 수 있는 우회로가 되며, 의미와 해석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결코 진리에 도달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진리라는 목표지점을 바라볼 수 있는—도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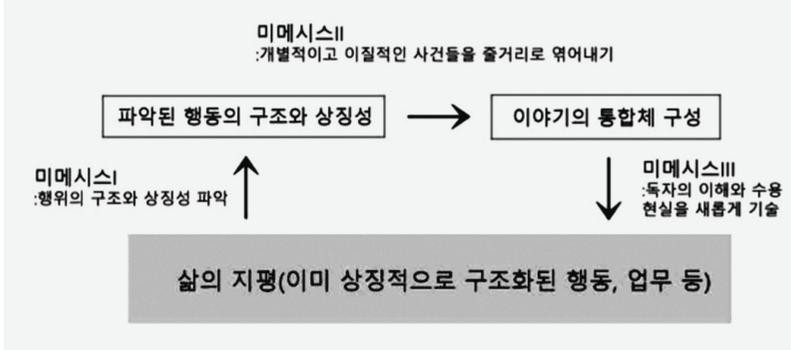
2) 삼중의 미메시스로 기록보기

리쾨르는 인간의 시간 경험은 이야기(narrative)로 연계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간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행위는 인간에게 미메시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삼중의 미메시스는 각각 모방하는 대상이 다르지만, 중첩되고 순환하며 각 단계에 상호 간섭한다. 삼중의 미메시스의 가장 큰 특징은 텍스트를 독자의 삶까지 연장한다

6) 시간 경험은 본 글에서 실재했던 사건과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본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허구의 시간 체험까지도 포괄한다.

는 것이다. 삼중의 미메시스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삼중의 미메시스



※출처 : 저자작성.

미메시스I, 미메시스II, 미메시스III은 각기 순환하는데, 미메시스I의 대상은 우리가 겪는 파편적인 행동들, 쉽게 말해 경험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독자와 저자가 준거하고 있는 의미 지평으로서의 세계이다. 이 인간 행위는 이야기 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준비 단계의 행위와 경험이다. 이 삶의 체험 세계는 주관과 객관의 대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주관이 객관보다 우선함도 아닌, 주객의 관계보다도 앞선 삶의 세계다(윤성우, 2017, 101; 정기철, 2016, 27).

인간의 행위는 일상경험, 미메시스I의 대상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이미 상징적으로 구조화되고, 기호나 문화의 전통이나 규범에 따라 해석한다. 이는 인간이 삶의 지평 이전 문화적으로 공통된 인식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행동의 구조와 상징성이 미메시스I의 주체에게 선취되지 않으면 미메시스I의 주체는 행동을 의미있게 분절할 수 없다. “리코르는 행동의 구조를 행동의 주체, 목적, 동기, 상황, 상호작용, 결

과 등 이른바 ‘행동의 개념망’으로 요약한다(유기환, 2010, 387-388)” 즉 행동의 개념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줄거리’로 구성해낼 수 있는 것이다. 실재에 존재하는 행동은 물리적이고 혼잡한 것일 뿐이지만, 행동의 개념망과 미메시스의 능력은 행동의 구조와 상징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미메시스Ⅰ은 주체가 일상경험으로부터 일반인과 공유할 수 있는 행동의 구조와 상징성을 파악해내는 행위를 지시한다. 기록의 생산자, 혹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삶의 지평에 존재한다. 이미 각자의 상징을 바탕으로 업무나 행동을 수행하고, 그 행동과 업무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 이해한다. 그리고 그 인식틀로 각기의 행동과 업무에 따라 줄거리를 만들어 구성해 낸다고 볼 수 있다.

미메시스Ⅰ의 행위로 파악된 행동의 구조와 상징성은 다시 모방되는데, 이것이 미메시스Ⅱ이다. 미메시스Ⅱ의 단계에서는 파악된 행동의 일반 구조와 상징성을 모방하여 실생활의 사건을 구조화된 이야기로, 행동의 계열체를 행동의 통합체로, 시간의 연대기적 차원을 시간의 비연대기적 차원⁷⁾으로 구성한다. 이야기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것이 아닌 논리적 순서로 재구성하고 논리적 통합체인 담론으로 만든다.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나열된 행동이 아니다. 그에 대한 이유와 방법의 차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미메시스Ⅱ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구성하기에 청중이나 독자가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 뽀뽀이 흩어진 이질적인 사건들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유기환, 2010, 388).

데리다는 각각의 행위를 개별 사건으로 보며 오로지 그 흔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았지만, 리코르는 그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행위를 인간이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기록에 있어서 미메시스Ⅱ의

7) 비연대기적 서사방식에서는 창작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해 이야기 내부의 시간을 재배열하고 조작한다.

단계는 이야기의 과정인 동시에 기록화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기록의 생산자는 사건의 요소인 행위를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매체에 고정시키며, 그 맥락을 기록에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분절된 행동은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고 통합체인 담론이 되는 것이다. 기록에 맥락을 포함하는 것은 미메시스 II에서 드러나는 행동의 이유와 방법, 그리고 논리적 재구성을 포함하는 차원이다. 케텔라의 숨은 서사 드러내기는 미메시스 II에서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고도 볼 수 있다. 숨은 서사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두텁게 기술하는 것은 독자가 기록을 줄거리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메시스II의 결과로 만들어진 줄거리와 텍스트는 독자에게 수용된다. 미메시스III의 대상은 미메시스 II에서 파악한 줄거리와 텍스트를 삶에 도입하는 과정이다. 리콰르는 『시간과 이야기3』에서 “미메시스III은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의 교차, ‘시적 형상화의 세계’와 ‘실제 행동의 세계’가 교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텍스트의 세계란 텍스트 안의 닫혀있는 세계가 아니라, 텍스트에서 해석하는 세계다. 살고 있으며, 고유한 가능성을 펼치는 세계를 기획하는 단계인 것이다(유기환, 2010, 389).

미메시스III은 이야기의 서사를 해석하는 해석론적 관점이다. 텍스트의 세계는 비현실적 장소, 즉 사유가 스스로 근거하는 장소가 된다. 단, 미메시스III이 독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인 것만은 아니다. 리콰르는 『시간과 이야기3』에서 “독자는 작품의 의미만이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를 통과해 텍스트가 지시하는 것, 곧 텍스트가 언표한 경험과 세계와 텍스트가 펼친 경험의 시간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텍스트에 반영된 시간적 경험과 실재를 간접적으로 읽어내는 것이다. 이는 기록에 반영된 실재를 간접적으로 읽는 것에 유효한 이야기다.

리콰르는 역사적 삶은 역사적 시간의 간극 때문에 직접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역사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정기철, 2016, 307-308).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체험된다. 재현된 기억은 실재와 유사하지만 그곳에서 동일성은 자명하지 않다. “자화상은 자화상의 인물과 작가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고 증명해 내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리콥르의 회화론에서 두 인물의 동일성은 그다지 자명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성해내야 하는 것이다(윤성우, 2017, 114-115).” 이때 벌어져버린 부재를 채우는 것이 독자의 상상력이다.

이런 입장에서 미메시스 III은 기록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인 동시에 재현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현실과 유사한 파편적인 기록을 읽고 직·간접적으로 삶에 도입하며 실재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미메시스III에서 이용자는 기록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미메시스III의 과정은 여(Yeo)가 말한 증거나 정보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메시스III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또 다른 현실을 찾는 것이다. 이야기의 담론은 현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부여는 원래의 의미에 수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야기가 현실을 새롭게 기술하는 것이다. 상상⁸⁾은 이미 체험한 것, 준거하는 세계의 행위를 통해 확장하기에 실재와 관계를 맺는다. 폴 리콥르에게 있어 미메시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복원하는 능력이다. 비의지적인 시간과 행위는 기록 속에 담긴 이야기로 되찾으며, 되찾은 시간은 허구적이고 상상적인 성격을 통해 읽어내는 것이다.

삼중의 미메시스로 보았을 때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시간이 아니게 되며, 과거는 미래에 개방되어 있고, 미래는 과거의 의미를 규정하며, 과거는 현재의 삶의 지평으로 또다시 환원되기에 기록과 기억이라는 서사는 인간 삶 그 자체가 된다.

8) 들뢰즈는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운동 사이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미결정 지대인 간극(틈)에서 비범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보았으며, 각극 안에서 생명은 스스로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리콥르의 상상과 유사하다.

3) 기록과 기억과 역사

기록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쉽게 부정되지만 실재와 연관될 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 아니다. 미메시스 능력을 통해 구성된 주관적인 이야기—하지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실재와 연관 지어지며,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미메시스로 기록과 기억과 역사를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아카이브의 정의(Justice)와도 연관되는 문제다.

폴 리콥르는 『기억, 역사, 망각』에서 기억의 주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개인기억과 집단기억이 교차하는 영역을 동일화하고 둘을 종합하고자 했다. 집단기억 안에서 조명되지 않은, 사건사 안의 개인 체험을 끌어내어 확연히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리콥르는 역사를 기억의 일부로 보며 역사를 문서화한 기억이라고 했다(정기철, 2016, 367-375). 즉 기록은 역사와 같고, 기억은 역사를 포함한다⁹⁾. 기억과 기록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지만, 역사가 포함하지 못하는 기억은 분명히 존재한다. 모든 기록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록학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카이브 행동주의를 주장하며 사회 전체의 문서화를 하려 했으나 그것은 중요 사건의 선별이라는 다른 객관으로 귀결되었다. 요제프 예루살미(Josep Yerushalmi)는 유대인들이 정교하게 과거를 재생산해냈지만, 집단기억을 오히려 파괴했다고 보았다(이종흡, 2018, 459-460). 그저 과거를 재생산 해내는 것으로는 근대 역사학의 답습일 뿐 정의와는 연관이 사라진다. 통합하는 거대담론은 결국 기억의 이데올로기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아카이브는 진실로 기억되지 못하는 것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역사서술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역사서술이 온전히 역사가들만의 업무가 아니라

9) 여기서 기록이란 미메시스로 해석된 텍스트 서사의 총체적인 의미이다. 기억 또한 개인적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 기억과 집단기억의 총합을 말한다.

기록을 선별하고 보존, 제공하는 아키비스트의 활동 또한 역사서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존재가 말하는 특이점(singularity)이다. 리코르는 기억의 이데올로기화 역사의 절대화와 같은 위험을 타파하기 위해 개인적 기억과 역사 사이의 변증법을 제안했다. 집단기억의 이데올로기화와 거대담론의 소수배제를 경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개인적인 기억이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닌 사람이 사는 영역 자체의 목소리인 개인기억은 각자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사건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한다. 이 다양성은 역사라는 틀로 묶이기에 파편화되지도 않는다. 리코르는 “사람의 삶은 이야기 해야하고,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역사가가 중시해야 할 역사적 증언은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라고 표방했다. 기억과 역사의 연관 구조는 증언에서 크게 드러난다. 증언이란 서사에서는 실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작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기에 리코르는 미메시스적인 절차를 거쳐, 무엇을, 누가,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이 아닌 일반 삶의 영역으로부터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해진다. 개인의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각기의 특이점 속의 커먼즈를 발견하는 것으로 기억의 이데올로기화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유효하게 할 수단으로서 생애사 연구, 구술 채록 등의 삶의 영역으로부터의 기록수집이 있다. 아카이브 정의는 수집단계에서부터 삶의 영역에 근거를 둔 실천성을 지녀야 한다. 삶의 영역과 단절된 것을 역사라 전제하면 미래와 관계있는 의미를 해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아날학파의 심성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그저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의미를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삶의 영역 내부에서 변화하는 균열을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균열을 조명하기 위해 종래의 기록의미론이 취해왔던 다양한 지

층을 추적하기, 숨은 서사 드러내기가 유효해진다. 리콤피르식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정의는 데리다가 말한 유령, 말해지지 못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키비스트는 기록화를 행할 때 다양한 범위의 기록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의견을 기술에 더하는 것과 같이, 많은 부분을 기술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아키비스트 자신의 주관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효한 방식이 두텁게 기술하는 것일 것이다. 두텁게 기술하기란 양자의 차이에서 오는 긴장감을 유지하며, 의미의 단면을 드러냄으로서 인식론적 간극을 줄이는 기술법이다(윤은하, 2016, 149-150). 두터운 기술은 상호 많은 해석을 포함함으로써 삶의 지평으로 진리를 확장할 수 있게 돕는다.

5. 맺으며

이 글은 기록의 재현성에 대해 기록학, 역사학, 철학 등이 취해온 입장과 기억담론의 흐름, 실재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폈다. 이용을 통한 재현에 주목했던 기존의 의미론에 더해 폴리콤피르의 삼중의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야기로 재현되고 표현되는 시간-사건을 바라보며, 아카이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기록과 실제와 기억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했다.

폴 리콤피르는 해석을 통해 진리를 담지하지만 그 진리를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열린 이상향으로 보았고, 근대적인 객관성을 거부했다. ‘이야기’라는 형태로 매개된 실재는 단절된 것이 아니며 삶의 지평으로 환원된다. 실재와 기록간의 여백은 결코 극복될 수 없지만, 그 여백에서 오는 해석을 통한 창조적인 텍스트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거는 결코 폐쇄적이지 않으며 삶의 지평에 근거한 현재와 미래에서 의미가

규정될 수 있다. 해석은 미래지향적이며, 미래는 다시 과거를 규정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과 역사의 변증법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아카이브 정의로 다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기록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로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구술과 같은 이야기를 통한 기록이다. 공적 기억이 되지 못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누락을 읽기 위해 아키비스트는 간주관적으로 두텁게 읽고, 두텁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현행 기록관리 체제는 공공 영역의 문헌 기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네러티브 기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록관리 업무의 과중으로 두터운 기술 또한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아카이브의 미래적인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부분의 기록화와 두터운 기술이라는 해석과 같은 실천이 필요한바, 이 제안을 통해 앞으로 기록관리계에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응중 (2011).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나타난 '기억'의 개념. 『프랑스사연구』, 24, 113-128.
- 노명환 (2011). 특집 : 서양역사 속의 공공성과 공론장 :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서양사론』, 110, 97-121.
- 노명환 (2006).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제도의 정립, 『기록학연구』, 14, 359-388.
- 박수연 (2019). 자크 데리다의 『Archive Fever』 읽기 : 유명론과 차원에 주목하며 석사학위.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기록관리전공.
- 박영욱 (2009). 『데리다&틀뢰즈 :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서울 : 김영사.
- 박이문 (2007). 『현상학과 분석철학』. 서울 : 이와 사랑.
- 설문원 (2019). 기록이란 무엇인가? : 활동의 고정적 재현물로서의 개념 탐구. 『기록학연구』, 59, 131-159.

- 신응철 (2001). 해석학과 문예비평 : 가다머와 야우스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연구』, 54, 255-271.
- 양호환 (2009). 집단기억, 역사인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109, 1-35.
- 유기환 (2010). 미메시스에 대한 네 가지 시각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벤야민, 리콰르. 『세계문화비교연구』, 33, 375-406.
- 윤성우 (2017). 『폴 리콰르의 철학과 인문학적 변주』.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윤은하 (2016).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에 대한 재고찰 :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인류학적 방법론을 통해, 『기록학연구』, 47, 5-46.
- 이경래, 이광석 (2017). 동시대 '대항기억'의 기록화 :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3, 45-77.
- 이기언 (2009). 폴 리콰르 : 해석학과 자기 이해. 『불어불문학연구』, 79, 401-439.
- 이승억 (2013). 경계 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38, 189-223.
- 이영남 (2014). 기록의 전회 : 〈포스트 1999〉를 전망하며. 『기록학연구』, 40, 225-277.
- 이종흡 (2018). 서양 기록학계의 기록담론 : 아카이브 병을 전후로. 『역사와 경계』, 109, 453-487.
- 장대환, 김익한 (2019). 기억, 기록, 아카이브 정의(正義). 『기록학연구』, 59, 227-320.
- 정근식 (201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3(2), 347-394.
- 채 윤 (2009). 『재현이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213-243.
- 정기철 (2016). 『폴리콰르의 철학』. 서울 : 시와 진실.
- 조민지 (2011).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27, 89-118.
- 한용희 (2019). 『롤랑 바르트의 비평에 내재하는 정신분석적 사유. 한국프랑스학논집』, 105, 271-295.
- 황설중 (2009). 『인식론 : 우리가 정말로 세계를 알 수 있을까』. 서울 : 민음인.
- Cook, Terry (2001).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1), 3-24.
- Caswell, Michelle (2010). Khmer Rouge Archives : Accountability, Truth, and Memory in Cambodia. *Archival Science*, 10(1), 25-44.
- Derrida, Jacques (1996). *Archives Fever : A Freudian Impression*. Trans. Prenowitz, Eric.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ris, Verne (2002), "The Archival Sliver: Power, Memory, and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l Science*, 2(2002), 63-86.
- Jacobson, Trond, Punzalan, Ricardo L, Hedstrom, Margaret (2013). Invoking "Collective Memory" : Mapping the Emergence of a Concept in Archival Science. *Archival Science*, 13(2-3), 217-251.
- Ketelaar, Eric (2001). Tacit Narratives : The Meaning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2), 131-141.
- Ketelaar, Eric (2005). Sharing : Collected Memories in Communities of Records. *Archives and Manuscripts*, 33(1), 44-61.
- Ketelaar, Eric (2012). Cultivating Archives : Meaning and Identities. *Archival Science*, 12(1), 19-33.
- Kyogoku, Natsuhiko (2012). *Teihon Hyakki yako - yo*. Bungeishunju (김소연 역. 2013. 『백귀야행 : 양』. 서울 : 손안의책).
- Nannelli, Elizabeth (2009). Memory, Records, History : The Records of the Commission for Reception, Truth, and Reconciliations in Tomor-Leste. *Archival Science*, 9(1-2), 29-41.
- Nora, Pierre (1992). *Les Lieux de mémoire*, quarto Gallimard (김인중, 유희수 외 역. 2010. 기억의 장소 1-5권, 서울: 나남).
- Millar, Laura (2006). Touchstone :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Archives. *Archivaria*, 61, 105-126.
- Ricoeur, Paul (1983). Temps et récit 1, Le Seuil (김한식, 이경래 역. 1999. 시간과 이야기1, 서울: 문학과 지성).
- Ricoeur, Paul (1984). Temps et récit 2, Le Seuil (김한식, 이경래 역. 1999. 시간과 이야기2, 서울: 문학과 지성).
- Ricoeur, Paul (1985). Temps et récit 3, Le Seuil (김한식, 이경래 역. 1999. 시간과 이야기3, 서울: 문학과 지성).
- Ricoeur, Paul (2000). La memorire l'histoire, l'oubli, Le Seuil.
- Yeo, Geoffrey (2007). Concepts of record (1) :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The American Archivist* 70, (Fall/Winter 2007), 315-343.
- Yeo, Geoffrey (2018). Records, Information and Data : Exploring the Role of Record -Keeping in an Information Culture. Facet Publishing.
- ISO 15489-1 (201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Records Management—Part 1 : Concepts and Principles.

〈웹사이트 및 언론기사〉

정미경, 김예지 (2018). 5·18 때 피를 나눈 '황금동 여성들'은 왜 잊혔나. 오마이뉴스. 검색일자: 2019. 8. 29.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4342